

2월 동향

- 09 한국노총경선지부 대표자의 참석
10 제60차 집행부의(2011년 2월 24일 제1차)
10 학원정상화 범대책위 참석
16 제61차 집행부의
17 학원정상화 범대책위 참석
17 학원정상화 관련 상경집회(교과부청사)
- 22 제15차 정상화추진위원회 참석
22 제12차 학원정상화추진직진대책위
23 제84회 직원인사위원회 참석
23 학원정상화 관련 상경집회(교과부청사)
25 제27차 사립대연맹 기명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
28 학원정상화 관련 인민선 민주당의원 단담

알림터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

●대학 학부교육 내실화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3,020억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3,020억원의 규모로 추진된다.

※공고내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mest.korea.kr/gonews/download.do?id=182419439&idKey=a9360d7a74ffde5a912d1282361be26>

2011년도 동계대학총장세미나 자료집

●주제발표 대학브랜드 시대의 대학 운영의 방향
- 주제1: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이배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주제2: 국가 미래와 대학(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사례발표 대학운영 효율화
- 사례1: 그린캠퍼스 운영 방안(충남대)
- 사례2: 전 학생 기숙형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원대)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kcue.or.kr/bbs/download.php?path=pds&file_name=2011동계대학총장세미나.pdf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조합원 소개



박정웅
경리팀
(☎5333)



최영무
국제교육지원팀
(☎5696)



안희수
학술운영관리팀
(☎5468)



하상진
수업학점팀
(☎5133)

3월의 생일차

03.02	김 교 생	관재팀
03.02	손 은 자	경리팀
03.04	최 충 환	평가분석팀
03.05	조 기 호	인학사정관팀
03.05	임 경 숙	생활체육교육센터
03.06	황 시 군	대구캠퍼스관리센터
03.06	김 도 군	입학팀
03.06	김 민 정	대학원
03.09	김 정 화	도서정보팀
03.09	윤 미 숙	학술진지정보팀
03.10	조 규 석	수업학점팀
03.12	양 춘 호	노동조합
03.13	조 경 제	중앙기지원
03.14	이 재 영	비호생활관
03.16	양 미 란	비서팀
03.16	전 미 예	대외협력팀
03.17	김 의 규	집사도서관
03.20	권 미 숙	자연과학대학
03.28	김 규 연	입학팀
03.28	박 동 원	장학복지팀
03.29	이 경 용	조형예술대학
03.29	황 성 규	DU문화원

‘스마트 캠퍼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면 어떨까? 그것도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지급한다면 말이다. 그야말로 양손을 번쩍 들고 ‘올레-!’를 외칠 일이다.

스마트 기기 지급은 학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직원들은 과연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게 될까? 직원들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했다 시행착오를 경험한 케이엘에이-텐코와 KT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스마트 기기 활용의 두 사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장비업체 ‘케이엘에이-텐코(KLA-Tencor)’는 연매출 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체됐던 시장을 반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고무된 CEO는 5400명 전직원에 아이패드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업무에 활용하기를 원했다. 직원들은 아이패드로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결국 케이엘에이-텐코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 솔루션을 도입하고, 데스크톱 가상화 인프라(VDI)를 구축했다. 필요한 직원들에게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보안 지침과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계를 교육해야 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아이패드를 지급했던 처음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셈이다.

KT도 2010년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라며 3만2천여명 전 임직원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

였다. 두 회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KT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기기를 지급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직원들이 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이전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사옥에 VDI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적으로 VDI 환경을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 체계, 디바이스 관리 등 엔터프라이즈 모바일리티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모바일 오피스와 스마트워킹 시장을 개척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위 두 사례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어떤 준비단계가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대학 스마트캠퍼스 어디까지 왔나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된지 불과 1년 만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5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1500% 가까이 폭증했다.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은 ‘다이나믹’ 그 자체였다. 전문가들은 2010년이 스마트폰 도입의 원년이라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을 것이라고도 한다. 작년부터 많은 대학들이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현재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교내에서



무선랜 접속 장소를 꾸준히 증설하여 왔고 대학 홈페이지의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도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기기

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나 미흡하다. 학사행정시스템(포탈, TIGERS) 모바일 서비스, 가상수업 및 정규 수업의 모바일 서비스, 메일 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보안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환경,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워킹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스마트폰은 전환만 받는 전화기가 아니다. 글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이다.

우리 대학이 진정으로 스마트캠퍼스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및 서버 등 인프라 구축과 보안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의 회사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김영준 ■ 조사통계부장

가뭇갈래 프로젝트 >> 경조사 예절

봉투는 예절을 싣고~

어릴 적, 세배하면 지갑을 열어 세뱃돈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흰 봉투에 세뱃돈과 함께 덕담을 적어 주시는 어른도 계셨다. 후자의 세뱃돈을 받으면서 공손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마치 작은 축복의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 <홍보부>

알맞은 문구로 봉투에 의미를 담자

결혼식 >>

경하혼인(慶賀婚嫁), 축 결혼(祝 結婚), 축 성혼(祝 成婚), 축 화혼(祝 華婚)
“결혼을 축하하며,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분의 소중한 만남을 축하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돌 >>

경하순산(慶賀順產), 축 출생(祝 出生), 축 득남(祝 得男), 축 공주탄생(祝 公主誕生), 축 돌(祝 돌)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생일잔치 >>

축 생신(祝 生辰), 축 회갑(祝 回甲 61세), 축 고희(祝 古稀 70세), 축 송수(祝 頌壽 80세), 축 구순(祝 九旬 90세), 축 백수(祝 百壽 99세), 60세 이상의 생일에는 장수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경하수연(慶賀壽筵)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祝 結 婚

두 분의 소중한 만남을 축하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贈 儀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 ○ ○

拜 上

○ ○ ○

謹 拜

취임·승진 >>

축 취임(祝 就任), 축 승진(祝 昇進), 축 부임(祝 赴任), 축 진급(祝 進級)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승진을 축하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업·창업·이전·공사 >>

축 발진(祝 發展), 축 개업(祝 開業), 축 개원(祝 開院), 축 번영(祝 繁榮), 축 이전(祝 移轉), 축 기공(祝 起工), 축 준공(祝 竣工), 축 완공(祝 完工)
“개업을 축하하며 앞날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전을 축하하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례식 >>

부의(聘儀), 근조(謹弔), 추모(追慕), 애도(哀悼), 조의(弔意), 위령(慰靈)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문치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병 >>

기축쾌유(祈祝快癒), 기 쾌유(祈 快癒), 기 완쾌(祈 完快)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쾌유를 빕니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점점 젊어져 할 경조사가 많아지는 나이가 됐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 기원하면서 사는 게 사람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봉투 앞에만 서면 항상 꾸벅거리게 된다. 얼마를 넣어야 할지도 정해졌는데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 봉투에 뭐라고 써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다음도 기사를 참조하시길. 거기 휴대전화 번호 쓰는 선생님!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